

## 『黃帝蝦蟆經』에 관한 研究\*

金基郁 · 朴炫局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 · 醫史學教室

abstract

The investigations on the circulative system of the self-guarding energy and demon in the 『Huang Di Xia Mo Jing』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voidance of the contraindications according to the age is referring to the alterations of whereabouts of the self-guarding energy and demon according to the age, and avoid needling the area in which the self-guarding energy and demon are resident. this method of avoidance have a period of nine. years.

Second method is the avoidance of the contraindications according to the vigorous energy in the four seasons and five subdivisions of the year. this types of vigorous energy is included in the five Zang(conservation) organs. there are the dominant and vigorous meridians at the every 72 days of five subdivisions of the year, and the contraindications i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on this meridians,

The third method is the avoidance of the contraindications according to the most weakened energy in the four seasons and five subdivisions of the year. It is the contraindications i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on the Zang meridians in the state of the most weakened energy,

The fourth method is the avoidance of the contraindications according to whereabouts of the self-guarding energy and demon in a specific day or time. there are 4 kinds of the contraindications in this type, that is, 4 kinds of periodicities in every 30 days, 60 days, 12 days, and 24 hours. the self-guarding energy and demon circulate through the areas of whole body by the periodicities and exist in the specific area at the specific day or time. It is the contraindications i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on these specific areas.

keyword: Huang-Di-Xia-Mo-Jing(『黃帝蝦蟆經』), the self-guarding energy(人氣), demon(人神), contraindications(禁忌)

『黃帝內經』의 의학이론은 氣、陰陽五行、

### I. 緒論<sup>1)</sup>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전문 학술지 논문  
계제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三陰三陽、天人相應、形神觀 등의 사상을 배경으로 삼았고, 특히 천인상응에 따른 인체의 생리적인 운행을 다양하게 나타내었다. 대표적으로 위기, 영기 운행체계를 50황으로 나타내었고, 干支나 八風을 이용하여 인체 기혈의 운행 패턴을 설정하고 이를 침구학의 처방에 응용하게 되어 후세 침구학에서 子午流注法이나 靈龜八法 등으로 발전하여 침구임상의 영역을 확대시켰다.

천인상응에서 개재하는 것이 神이고 이러한 신이 遊行하는 형식은 다양한데, 『황제내경』 이후 이에 대해 전문적으로 접근한 의서는 『黃帝蝦蟆經』<sup>1)</sup>이라 할 수 있다.

『黃帝蝦蟆經』은 漢代의 저작으로 『隋書·經籍志』에 『黃帝蝦蟆忌』라 저록되어 있고, 송 이후의 목록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蝦蟆”는 한대 方士가 달 속에 蝦、兔가 있다는 설에 근거하여 날짜에 따라 針灸禁忌를 추산한 專書이다.<sup>2)</sup>

『黃帝內經』과 後世鍼灸醫籍에는 확연히 대립되는 치료 사상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得氣、得神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避忌、避神하는 것이다. 특히 천인상응에 따른 人神、人氣의 운행은 『내경』 이후 『黃帝蝦蟆經』、『劉涓子鬼遺方』、『千金方』、『外臺秘要』、『黃帝明堂灸經』 등 대부분의 침구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주로 鍼灸避忌法을 언급한 부분은 오늘날 대부분이 흩어지고 있다.

人神、人氣의 다양한 운행 체계는 氣血의 운행이며 침구 이론의 근거를 이루고 있기에, 鍼法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用藥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논자는 叢辰과 人神、人氣鍼灸服藥宜忌法에 관한 최초의 전문서인 『黃帝蝦蟆經』에 기재된 人氣·人神의 운행체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 II. 本論

『黃帝蝦蟆經』은 일반적으로 漢代에 저작되었고, 일본에 『黃帝蝦蟆經』 1권본이 현존하고 있다. 卷末에 丹波元簡의 跋文에서 “『黃帝蝦蟆忌』一卷은 의가인 和氣奕世씨 집안에서 전해져 왔는데 丙辰秋(1796년)에 白川侍從을 통해 빌려서 배겼다. 『隋·經籍志』에 의하면 『黃帝蝦蟆忌』一卷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책이다”라 하였다.

이 책에는 “八木”、“陽燧” 등 최초의 灸法史料와 禁忌孔穴 명칭(60여 개) 및 禁忌部位圖 등 매우 주목할만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sup>3)</sup>

丹波元胤은 “이 책은 가탁한 것이지만 『太平御覽』에서 『抱朴子』를 인용하여 ‘黃帝經에 있는 『蝦蟆圖』에서 달이 초이튿날에 생기고 蝦蟆가 생기므로 사람에게도 그 곳에 針灸할 수 없다고 하였다.’ 『隋書·經籍志』에도 『明堂蝦蟆圖』 1권, 徐悅의 『孔穴蝦蟆圖』 3권이 있어 晉宋시기에 이미 세상에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해에 새가 있고 달에 두꺼비와 토끼가 있다는 설은 일찍부터 있었다. 『史記·龜策列傳』에 ‘해는 덕을 베푸는 천하의 군주이지만 三足鳥에게 육보이고, 달은 형을 집행하는 신하지만 두꺼비에게 먹힌다’고 하였다. 『淮南子·精神訓』에서 ‘해 속에 跋鳥가 있고, 달 속에 蟾蜍가 있다’고 하였다. 『說林訓』

1) 不著撰人: 『黃帝蝦蟆經』, 中醫古籍出版社, 1987年.

2) 馬繼興: 『中醫文獻學』, 上海科技出版社, 1990. p.300.

3) 『上揭書』: p.300.

』에서 '달이 천하를 비추지만 두꺼비에게 먹히고, 삼족鳥의 힘이 해를 이기지만 雛禮에게 굴복한다'라 하였다. 『參同契』에서는 '蟾蜍와 兔魄은 日月의 두 氣를 함께 밝히고 섬여는 卦節을 나타내고 토백은 빛을 토해낸다'고 하였다. 『文選·謝莊·月賦』 注에서 '張衡의 『靈憲』에서 月은 陰精의 宗으로 이것이 쌓여 獸가 되고 토끼의 모양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이상을 근거하면 『黃帝蝦蟆經』은 漢人의 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sup>4)</sup>고 하였다.

『黃帝蝦蟆經』은 叢辰과 人神、人氣鍼灸服藥宜忌法에 관한 최초의 전문서로 年、季、日에 따른 각종 人身人氣灸刺避忌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서술하였을 뿐 아니라, 灸刺避忌法을 위배했을 때 나타나는 위해성을 제시하였다.

## 1. 『黃帝蝦蟆經』의 人氣 및 人神의 運行體系

### 1) 年神避忌

年神은 사람의 연령에 따라 人身之神이 소재하는 부위가 이동함을 가리킨다. 年神避忌는 그 나이에 따라 인체에 소재하는 부위를 근거로 鍼灸할 때 그 부위를 피하는 鍼灸避忌法이다. 『황제하마경』에서 기술한 年神에는 九部年神이 있다. "九部"는 神宮部(臍下四寸中極에 해당함)·大敦部(頸喉結下 天突穴)·巨部(肩髃上 兩骨陷中)·頸部(頷下喉結上廉泉穴)·下承部(脛下承漿穴)·天部(前額正中神庭穴)·厥庭部(大腿前側伏兔穴)·脛部(膝下三里穴)·地部(足內側太衝穴)를 가리킨다. 『황제하마경』에

서는 나이에 따라 인체의 한 부위에 머무는데 9년에 한번 순환하여 순환이 끝나면 다시 시작한다고 하였다. 1세에는 神이 神宮部에 있고, 2세 때에는 大敦部, 3세에는 巨部, 4세에는 頸部, 5세에는 下承部, 6세에는 天部, 7세에는 厥庭部, 8세에는 脛部, 9세에는 地部, 10세에는 다시 神宮部, 11세에는 大敦部 ……에 소재 한다. 『黃帝蝦蟆經·年神舍九部法』에서 "九部者, 神所藏行, 不可犯傷. 一有神宮部, ……夫神上法天而下行無已, 終而復始, 故必慎之. 神所在, 不可灸刺. 當其年神傷之致死也"<sup>5)</sup>라 하였다.

예를 들면 1·10·19·28·37·46·55·64·73·82·91·100세에는 神이 神宮部에 있기 때문에 상술한 연령에 해당하는 환자는 臍下 4촌인 中極穴을 灸刺해서는 안 된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 2) 四時五節王氣避忌

『황제하마경』에서는 四時、五節、五行의 氣가 사람의 五臟에 內藏해 있으며 각 節인 72일에는 이 절기에 王하고 主時하는 臟腑의 經脈을 灸刺할 수 없다고 하였다. 봄, 여름을 예로 들면 『黃帝蝦蟆經·五藏四時氣主日』에서는 "春甲子七十二日, 青氣內藏于肝, 外連于筋, 禁在目, 春無灸刺足少陽·厥陰: 夏丙子七十二日, 赤氣內藏于心, 外連于血, 禁在舌, 夏無灸刺手太陽·少陰也"<sup>6)</sup>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五行에 의거하여 일년을 五節로 나누면 각 節은 72일이 된다. 이것은 『管子』·『春秋繁露』·『淮南子』 등에서 1년을 五行 순서에 따라 주관하는 時를 五節로 나

4) 張燦理: 『中醫文獻學』, 人民衛生出版社, 1998. p.51.

5) 『上揭書』: p.33.

6) 『上揭書』: pp.44~45.

는 것과 비슷하다. 다른 점은 여기에서는 봄을 일년 五節의 시작으로 하였으나, 『管子』 등에서는冬至를 일년 五節의 시작으로 보았다.

五行과 物候·氣候의 관계에 따른 관점에서 논하면 봄을 五節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여기에서 “靑氣”、“赤氣” 등은 木氣、火氣 등 五行之氣로 五行之氣가 그 절기에 이르게 되면 각 절기의 王氣가 된다. 五行之氣는 인체에서는 五臟之氣이다. 五臟之氣가 그 절기에 이르면 人身의 五行王氣가 된다. 『황제하마경』에서는 五臟은 해당하는 節이 되면 五行의 王氣를 얻어 운행하며, 그 經脈과 五行 속성이 같은 陽經은 灸刺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春 甲子 72일은 肝木의 氣가 王하기 때문에 足厥陰(肝)經과 足少陽(膽)經을 灸刺할 수 없고, 夏 丙子 72일은 心의 氣가 王하기 때문에 手少陰(心)經과 手太陽(小腸)經을 灸刺할 수 없으며, 나머지도 이와 같이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일년 五節에서 인체에 五行王氣가 소재하는 臟腑經脈은 灸刺할 수 없다. 이는 『靈樞·陰陽繫日月』에서 四時 열 두 달 足十二經에 따라 인체의 氣가 소재하는 부위에 禁刺하는 것과 일치한다.

### 3) 四時五行死氣避忌

『黃帝蝦蟆經·五藏王日』에서 灸刺에 四時 王氣가 소재하는 臟腑의 經脈을 피하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灸刺에 四時五行의 死氣가 있는 五臟의 經脈은 피하라고 하였다. 즉 “立春後七十二日, 木王土死, 不治脾募輸; 立夏後七十二日, 火王金死, 不治肺募輸; 立秋七十二日, 金王木死, 不治肝募輸; 立冬後七十二日, 水王火死, 不治心募輸; 四季土用日七十二日, 土王水死, 不治腎募輸”<sup>7)</sup>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도 五行으로 일년을 다섯 등분하였다. 단 앞의 五節分法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운용한 것은 漢代 이전 象數學에서 가장 많이 상용한 五行主時 구분법으로 곧 土王四季이다. 이른바 “木王土死”·“火王金死” 등은 완전히 象數學에 의한 “五行의 王相死囚休” 이론이다. 모 季節의 五行에서 某行의 氣가 王(혹 王氣)하면 그것의 克을 받은 어느 行의 氣는 死(혹은 死氣)한다. 立春 후 72일은 木氣가 王하다. 木은 土을 극하기 때문에 土는 死氣가 된다. 立夏 후 72일은 火氣가 王하다. 火 克 金하기 때문에 金은 死氣가 된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인체의 五行 즉 五臟의 五臟之氣도 王相死囚休와 유관하고, 또한 天地의 五行之氣가 王相死囚休로 전화하는 것과 상응한다. 立春 후 72일은 天地의 五行之氣에서 木王土死한다. 사람과 天地가 상응하기 때문에 인체의 五行之氣가 상응하여 肝(木)王脾(土)死한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황제하마경』에서 灸刺할 때 각 시기 내에 있는 死氣의 臟에 속하는 經脈은 피해야 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春 72일에는 脾經의 募穴·輸穴 등에 灸刺를 금한다.

이 밖에 『황제하마경』에서 “春不治左脇, 夏不治臍, 秋不治右脇, 冬不治腰”<sup>8)</sup>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天人相應 원리에 기반을 둔 太少陰陽 혹은 五行의 時空에 따른 분포 규율의 象數學的 이론에 근거한 四時四部人氣灸刺避忌法이다.

인체의 左·右·前·後는 天地의 東·西·南·북 각 방위에 대응한다. 天地의 少陽之氣 혹은 木氣는 봄에 동방에서 왕성하고, 太陽之

7) 『上揭書』: pp.45~46.

8) 『上揭書』: p.46.

氣 혹은 火氣는 여름에 남방에서 왕성하며, 少陰之氣 혹은 金氣는 가을에 서방에서 왕성하고, 太陰之氣 혹은 水氣는 겨울에 북방에서 왕성하다. 인체의 陰陽五行之氣와 天地陰陽五行之氣는 상응하기 때문에 봄에 인체의 少陽 혹은 肝木之氣는 인체의 좌측 중앙인 左脇에서 왕성하고, 여름에 인체의 太陽 혹은 心火之氣는 身前 중앙인 臍部에 布散되며, 가을에 인체의 少陰 혹은 肺金之氣는 인체의 우측 중앙인 右脇에서 왕성하고, 겨울에 인체의 太陰 혹은 腎水之氣는 身後 중앙인 腰部에서 왕성하다. 왕성한 氣가 소재하는 곳은 범할 수 없기 때문에 금기해야 한다. 『황제하마경』에서 제시한 이러한 四時四部禁忌治法은 후세에는 대개 “四季人神所在鍼灸避忌法”이라 부른다.

#### 4) 逐日人神·人氣所在灸刺避忌法

『황제하마경』에는 每月三十日人氣(人神)所在灸刺避忌法·六十甲子人神所在灸刺避忌法·十二建人神所在灸刺避忌法·四時十日五臟王氣所在灸刺避忌法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다.

##### (1) 三十日人氣所在灸刺避忌法

이는 『황제하마경』의 주제가 되는 내용으로 第一篇에 있다. 30일을 朔望月(太陰月)의 일수로 삼아 하나의 朔望月에서 각 日에 따라 인체의 氣가 소재하는 經脈 혹은 부위를 구체적으로 거술하고, 인체의 氣가 소재하는 곳에 모두 “不可灸刺傷之”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인체의 氣가 소재하는 곳을 灸刺하였을 경우 야기되는 폐해를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날마다 人神이 소재하는 부위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1일과 16일에는 『黃帝蝦蟆圖·隨月勝毀避灸刺法』에서 “月生一日 蝦蟆生頭喙, 人

氣在足(少)陰之足心, 不可灸傷之. 使人陰氣不長, 血氣竭盡 泄利, 女子絕產, 生門閉. 同神”, “月毀十六日, 蝦蟆始省頭, 人氣在足太陽目眚風府, 不可灸刺傷之. 使人風盲病, 芑芑無所見, 令人病水. 不同神. 彼在胸中”<sup>9)</sup>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月生”은 달이 밝기 시작하는 것으로 즉 밝은 부분이 증가하는 것이며, “月毀”는 이지러지는 것이다. 두꺼비와 토끼는 달 속의 그림자를 형상화하여 묘사한 것으로 『황제하마경』에서는 두꺼비와 토끼 그림자의 각 부분이 나타나는 것(生)과 사라지는 것(省)으로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나타내었으며 이에 따라 달에 해당되는 날짜의 차례를 정하였다. 인체의 氣가 소재하는 부위는 날짜에 따라 이동한다. 1일에서 15일까지 인체의 氣는 足少陰經 → 足太陰經 → 足陽明經의 순서로 옮겨가며 하부에서 상부로 옮겨가고 다시 상부에서 하부로 옮겨간다. 16일에서 30일까지는 인체의 氣가 足太陽經 → 足少陽經 → 足厥陰經 순서로 옮겨가며 상부에서 하부로 옮겨가고 다시 하부에서 상부로 옮겨간다. 두꺼비와 토끼가 “生”하고 “省”하는 부위와 인체의 氣가 소재하는 부위는 아무런 상응 관계가 없다. 逐日人神과 각 日에 人氣가 소재하는 부위는 때로는 같고(1일 같은 경우) 때로는 달라(16일 같은 경우) 날짜에 따라 人神이 행함에 있어서 분명한 규율이 없는 것 같다.

##### (2) 六十甲子日神所在灸刺避忌法

『황제하마경』에서는 六十甲子日人神을 “六甲日神”이라 하였는데 이는 60甲子日에 따라 인체의 60부위를 周身하는 人身之神를 가리킨다. 『황제하마경』에 기재된 “六甲日神游舍圖”

9) 『上揭書』: pp.3~18.

와 이에 대한 설명에서 날짜에 따라 人神甲子日에는 頭頂의 정중앙에 있고 甲子日로부터 10일 동안은 頭 → 面 → 頸 → 肩 → 臂 → 手之左側으로 游舍하여 左手 合谷穴에 이른다. 甲戌日로부터 10일 동안은 右側頭 → 面 → 頸 → 肩 → 臂 → 手로 游舍하고 左手 合谷穴에 이른다. 甲申日로부터 10일 동안은 신체 前面의 右側인 乳에서 肘裏 → 季肋 → 髀上 → 髀 → 膝 → 膝下 → 踝 → 足背 → 足心으로 유행한다. 甲午日에서 10일은 신체 前面 左側의 대웅 부위로 游舍하고, 甲辰日로부터 10일은 左足內踝에서 상행하여 左小脚 內側 → 大腿內側 → 陰部를 거치며 여름에는 陰部에서 하행하여 右大腿內側과 少腿內側을 거쳐 右足內踝로 옮겨간다. 『황제하마경』에서 “凡灸鍼之謹避六十日節，靈符所舍，犯之致死”<sup>10)</sup>라고 하였다.

(3) 十二建人神所在灸刺避忌法

“十二建”은 建·除·滿·平·定·執·存·危·成·收·開·閉 등 12叢辰으로 이는 실제 月建(月支)의 支로 시작하는 12일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正月建寅이면 正月의 寅日이 즉 建日이고 卯日이 除日로 나머지도 이와 같이 유추할 수 있다. 『黃帝蝦蟆經·十二建禁處』에서 “建不治足，除不治尻，滿不治腹，平不治背，定不治心，執不治手，破不治口，危不治鼻，成不治眉，收不治髮，開不治耳，閉不治目”<sup>11)</sup>이라 하여 足 → 尻 → 腹 → 背 → 心 → 手 → 口 → 鼻 → 眉 → 髮 → 耳 → 目으로 유행하는 체계이다. 이러한 逐日人神은 족부에서 상부로 향하여 이행됨을 알 수 있다.

(4) 四時五臟王日灸刺避忌法

『黃帝蝦蟆經·五藏屬五神日』에서 “春肝王 甲乙日，無治肝募輸及足厥陰；夏心王，丙子日，無治心募輸及心主手少陰；四季脾王，戊己日，無治脾募輸及足太陰；秋肺王，庚辛日，無治肺募輸及手太陰；冬腎王，壬癸日，無治腎募輸及足少陰”<sup>12)</sup>이라 하여 사시 오행에 따라 王하는 臟의 募輸로 행하고 경락적으로는 足厥陰 → 心主手少陰 → 足太陰 → 手太陰 → 足少陰으로 유행한다. 이러한 禁忌法은 『靈樞·五禁』의 四時十日五部禁刺法의 사상과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5) 十二時人神所在灸刺避忌法

“十二時”는 주야 12時辰을 말한다. 『黃帝蝦蟆經·擇五神所舍時避灸判法第四』에서 “精神魂魄所舍時，凡灸刺當避此時。此時即不受治，又傷煞人也。慎勿犯之！鷄鳴舍頭，平旦舍目，日出舍耳，食時舍口，禺中舍肩，日中舍脇，日昃舍臑，晡時舍小腸，日入舍脛，黃昏舍陰，人定舍傳于人，夜半舍足。右十二時，神所舍處，慎能禁之”<sup>13)</sup>라고 하여 하루의 鷄鳴·平旦·日出·食時·禺中·日中·日昃·晡時·日入·黃昏·人定·夜半에 따라 인체에서 頭 → 目 → 耳 → 口 → 肩 → 脇 → 臑 → 小腸 → 脛 → 陰 → 傳于人 → 足의 순서로 머문다.

“鷄鳴”에서 “夜半”까지는 후세 12地支 紀時에서 丑에서 子時에 해당된다. 『황제하마경』에 의하면 人神이 1일 12시에 頭部에서 足部로 하행하며 각 時辰 안에 神이 소제하는 곳은 灸刺를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黃帝蝦蟆經·擇五神所舍時避灸判法』에서

10) 『上揭書』：p.39.

11) 『上揭書』：p.48.

12) 『上揭書』：p.44.

13) 『上揭書』：pp.42~43.

또한 “五神在時 ……平旦至食時，魂在中府，魄在目眚，神在膀胱，志在太倉，意在陰驕；食時至禺中，魂在人中交(一本在太陰)，魄在口左右，神在中府，志在天窓，意有人迎，……”<sup>14)</sup>이라 하였는데, 여기서의 五神은 五臟의 神을 가리킨다. 五臟의 神도 時辰의 추이에 따라 소재하는 부위가 바뀐다. 『황제하마경』에서 “五神이 소재하는 곳에는 刺鍼이나 뜸을 떠선 안 된다”<sup>15)</sup>고 하였다.

## 2. 鍼灸服藥合藥叢辰宜忌論

鍼灸服藥合藥叢辰宜忌論(“鍼藥叢辰宜忌論”이라 간칭함)은 鍼灸·服藥과 合藥(藥餌를 修合 즉 制劑·制藥)에 적절한 지의 여부, 유해한 시간과 방위에 관한 이론이다. “叢辰”은 특정한 陰陽五行의 氣의 의미가 부여된 시간과 방위 혹은 특정한 시간 방위에 부여된 陰陽五行의 氣이다. 術數의 叢辰 이론을 의학에 이용하여 鍼灸·服藥·合藥의 시간과 방위의 吉凶宜忌를 확정함으로써 鍼藥叢辰宜忌論을 형성하게 되었다.

術數에서 叢辰家의 기원은 매우 빠르다. 叢辰家의 時方趨避法이 의학에 응용된 것도 비교적 빨라 馬王堆醫書인 『五十二病方』·『胎產方』·『雜療方』 등에서 이미 “建日”·“除日”·“大時”·“小時” 등 叢辰의 명칭 및 그 避忌를 언급하였다. 이는 春秋戰國에서 漢初에 이르기까지 叢辰 이론이 이미 醫學에 응용되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현존하는 의학 문헌에서 최초로 비교적 계통적으로 鍼藥叢辰宜忌를 논

한 것은 역시 漢代의 『황제하마경』이다.

『황제하마경』에서 수록된 叢辰은 그 성질에 따라 말하자면 吉辰—鍼灸·服藥·合藥에 선택하는 叢辰과 凶辰—鍼灸·服藥·合藥에 避忌해야 하는 叢辰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主時에 따라 말하면 年辰·月辰·日辰·時辰이 있고 그 가운데 日辰이 가장 많다. 적용성을 말하자면 鍼刺나 鍼灸에 대한 것, 服藥이나 合藥에 대한 것, 鍼藥療法에 대한 叢辰들이 있다. 이러한 吉凶叢辰에는 神煞의 이름이 있거나 어떤 것은 煞名이 없고 某日 혹은 某方을 바로 언급한 것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명칭이 있는 吉辰 : 天醫(年·月·日)·天德·生氣.

명칭이 없는 吉辰 : 甲辰·乙巳·丙辰·丁巳·甲乙日鷄鳴·日入·維時·哺時·丙丁日哺時·目入·人定·夜半·戊己日人定·夜半·禺中·平旦·日出·庚辛日哺時·目入·人定·夜半·壬癸日鷄鳴·維時.

명칭이 있는 凶辰 : 血忌·反支·四激·四絕·五離·五不生日·死氣.

명칭이 없는 凶辰 : 乙丑·丁卯·己巳·癸未·乙酉·丁亥·庚辰·甲午·庚子·庚戌·戊申·甲寅·丙辰·戊午·丙寅·辛巳·乙卯·辛未·五寅·六戌, 春戊辰·己巳·戊午·夏丁亥·戊申·己酉·己丑·己未, 秋戊子 辰辰·戊申·辛亥·冬己卯·辛酉·己未·己亥, 四季五辰·五未, 五月辛巳, 매월 1·5·6·7·8·15·16·18·23·24·27·29일,

14) 『上揭書』: p.43.

15) 『上揭書』: 「擇五神所舍時避灸判法」, p.43. “五神所在處, 不可判灸禁之”

四時月 전후 3일·晦朔日·自生年本命日, 日出時·日中時, 建(日)黃昏·除日入·滿人定·平夜半·定夜半過·執鷄鳴·破平旦·危日出, 成辰時·收日中·開日·閉晡時; 正·五·九月東向, 二·六·十月北向, 三·七·十一月西向, 四·八·十二月南向.

『황제하마경』에 수록된 凶辰은 吉辰에 비해 훨씬 많아 吉辰의 선택보다 凶辰의 忌避를 더욱 중시하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

시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황제하마경』에 수록된 상술한 叢辰의 본래 의의에 대해 상당 부분은 고찰하기 어렵다.

『황제하마경』에서 “凡天陰霧、疾風暴雨、雷鳴地動、四時月節前後三日、晦朔、日月薄蝕無光明、日大寒大熱、血忌、反支、四季五辰五未、自生年本命日、人氣大亂、陰陽分爭、凡如此之日、皆不可犯之、煞人、忌之”<sup>16)</sup>라고 하였다.

상술한 日時가 “人氣大亂, 陰陽分爭”한다고 본 것은 天人合一 사상에 의거하였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日時에는 天地陰陽의 氣가 몹시 어지럽기 때문에 인체의 陰陽之氣도 이에 상응하여 몹시 어지럽고 다룬다. 이러한 日時에는 鍼藥 치료를 금기하는데 이는 인체의 陰陽之氣가 이러한 일시의 천기의 陰陽之氣에 따라 어지럽기 때문이다. 『황제하마경』의 첫머리인 「黃帝蝦蟆圖隨月生毀避灸判法第一」에서 “日鬪者, 色赤而無光, 陽氣大亂. 右日不可灸刺, 傷人諸陽經, 終令人發狂也”<sup>17)</sup>라고 하였다. “日鬪”는 태양 속에 나타나는 “三足鳥”로 태양의 흑점이 극렬하게 활동할 때 나타나는 태양의 暗斑이다. “日鬪”의 날에 灸刺를 금기하였는데 이는

이때에 인체와 자연계가 상응하여 陽氣가 몹시 어지럽기 때문이다.

『황제하마경』에 이와 같은 치료 금기 사상이 분명히 있다. 즉 인체 陰陽之氣와 천지가 상응하여 大亂分爭할 때 鍼藥治療를 금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병을 일으키거나 죽게 된다. 반대로 인체의 陰陽之氣와 천지의 陰陽之氣가 상응하여 안정을 이룰 때 치료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황제하마경』에서 四時가 시작되는 달의 전후 3일, 晦朔日、血忌、反支、四季五辰五未、本命日 등과 같이 叢辰이 凶辰을 나타내면 그 때에 치병을 금한다. 이는 침약 치료에 있어서 天地氣亂(즉 인체의 氣亂)하는 叢辰을 피하고 天地氣定하는 叢辰을 선택하는 사상에서 나왔다. 氣定을 따르고 氣亂을 피하는 것이 『황제하마경』 鍼藥叢宜忌論이다.

『황제하마경』에 수록된 煞의 명칭이 있는 吉凶 叢辰 가운데 吉辰天德、生氣와 凶辰四激、四絕、五難、五不生日은 각각 生과 死와 관련된 叢辰이다. “天德”은 生、予、成을 주관하는 大吉한 辰으로 살육이나 징벌과 같은 일을 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사에 모두 이롭다. 生、予、成을 주관하는 德神은 본래 陽神으로 실은 陽氣이고 陽氣는 또한 生氣이다. 生氣라는 명칭은 그 神이 소재하는 날짜에 천지에 生氣가 있고 生에 이로움이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種植·養畜·産育·질병 치료에 모두 적합하다. “死氣”·“四絶”·“五不生日”은 그 辰이 소재하는 날짜에 생기가 없음을 나타낸 것으로 생기가 없으면 죽거나 생에 불리하기 때문에 種植·養畜·産育、질병 치료에 大忌한다. “四激”과 “五禽”는 死와는 관계가 없지만 실제상으로는 死氣가 있고 生氣가 없는 것이

16) 『上揭書·血忌日法』: pp.49~50.

17) 『上揭書』: p.2.

다. 四激은 春戌日·夏丑日·秋辰日·冬未日로 이들은 모두 四時에 衝破하는 墓辰이다. “墓辰”은 오행이 이미 죽어 生하지 못하는 辰을 가리키며 이 시기 이 방위의 五行은 자연 死氣만 있고 生氣는 없다. 『五行大義』에서 “木 …… 葬于未 …… 火 …… 葬于戌 …… 金葬于丑 …… 水葬于辰”<sup>18)</sup>, “辰有死水, 未有死木, 戌有死火, 丑有死金”<sup>19)</sup>이라 하였다. 즉 戌·丑·辰·未辰, 火·金·水·木은 각각 生氣가 없고 死葬의 단계에 처해 있다. 死期에 처하고 또한 四時의 衝破를 당하면 더욱 死하고 生은 없다. 따라서 四激日에 따른 用事의 氣는 死氣·四絶·五不生日 등과 같거나 더욱 심하다. “五禽”은 五申·五酉의 辰으로 “五舍”와 상반되는 凶辰이다. 『五行大義』에서 “申、酉, 陰之所主、肅殺之方, 日月皆沒于其所, 西方少陰衰老之處, 物之所惡, 故以爲離”<sup>20)</sup>라고 하였다. 즉 五離日是 殺氣가 성하고 生氣가 쇠약해지는 辰이다. 忌하는 바는 상술한 몇몇 凶辰과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황제하마경』에서 상술한 鍼藥 吉辰은 곧 生氣가 있는 것으로 生에 유리한 吉辰이고, 鍼藥 凶辰은 生氣가 없고 殺氣가 있어 生에 불리한 凶辰이다. 치병의 목적은 환자를 “生”하는 방향으로 회복시켜 건강하게 하고 “死”의 방향으로 발전하여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鍼藥으로 질병을 고치는데 生氣의 吉辰을 선택하고 生氣가 없는 凶辰을 피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 천지에 生氣가 있으면 인체에도 生氣가 있고, 천지에 生氣가 없으면 인체에도 이에 응하여 生氣가 없다. 生氣가 있을 때에 치료하면 쉽게 낫

고 生氣가 없을 때에는 치료하여도 차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를 더욱 상하게 하여 병을 악화시킨다. 특히 刺鍼과 攻邪하는 약으로 치료하는 방법 그 자체가 인체에 상당한 손상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生氣가 없으면 더욱 상하게 하여 화를 끼친다. 이 때문에 鍼藥으로 병을 치료할 때에는 生氣가 있는 吉辰을 선택하고 生氣가 없는 凶辰은 피해야 한다. 生으로 나아가고 死를 피하는 것이 『황제하마경』 鍼藥 叢辰 宜忌論의 기본 사상이다.

術數에서 “叢辰”이나 “神煞”의 종류가 매우 많다. 『황제하마경』에서는 이들 모두 혹은 대부분을 鍼藥療法の 시간과 방향의 宜忌를 확정하여 의학에 수용하지 않고 단지 그 가운데 아주 적은 일부분만 채택하였다. 醫家들이 채택한 叢辰은 의학과 관련된 총신이다. 시간 및 방위에 따른 陰陽五行之氣의 안정이나 분쟁, 生氣가 있거나 없음을 나타낸 이러한 叢辰 관계는 침약 요법의 결과인 吉凶에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또한 天人合一 즉 天地陰陽五行之氣의 治亂生死와 人身陰陽五行之氣의 治亂과 보조를 같이하여 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제하마경』의 鍼藥 叢辰 宜忌論은 象數學의 叢辰概念과 이론을 직접 채용하였고, 동시에 象數學의 天人合一論에 의거하였다. 鍼藥 叢辰 避忌의 최종적인 착안점은 여전히 인체 자체의 기능 상태 즉 人身之氣의 治亂盛衰에 있으며, “天人合一”은 鍼藥에서 趨避해야 하는 叢辰을 확정하는 작용을 일으켰다. 동시에 『황제하마경』에서 鍼藥 叢辰 宜忌論은 형식상으로 볼 때 術數 叢辰 宜忌論의 일부분이다. “天一합일” 사상을 운용함으로써 “叢辰”은 인체에 내재된 기능 상태의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었다. 이는 단순한 象數學 개념이 아니라 의학

18) 金秀吉 外1人 共譯: 『五行大義』 「論生死所」, 大有學堂, 1998年, pp.122~123.

19) 『上揭書』: 「論生死所」, pp.127~131.

20) 『上揭書』: 「五離」, p.198.

개념의 의의를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天人合一”論은 象數學의 叢辰概念이 醫學化로 향하게 하였고 術數叢辰趨避가 醫學化되는 작용을 일으켰다.

### 3. 叢辰趨避法과 人神禁忌法의 差異와 連繫

『황제하마경』에서 清代의 의서에 이르기까지 鍼藥에 따른 叢辰趨避法과 人神(人氣를 포함)鍼灸避忌法은 시종 같은 반열에 놓여 있거나 혹은 하나의 전문서적에 합해져 있어, 양자는 같은 성질의 이론에 속하고 밀접하게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叢辰趨避法과 人神避忌法 사이에 공통성과 연계성은 확실히 있지만 차이도 있다.

人神鍼灸避忌法의 직접적인 착안점은 人身의 神이다. 人神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인체의 각 부위를 유행한다. 따라서 침구에 있어서 일정한 시간 내에 인체의 일정한 부위를 避忌만하고, 기타 부위는 모두 평소대로 鍼灸를 시술할 수 있다. 또한 人神은 생체 활동의 중요한 氣로 보아 鍼灸를 기피하는데 즉 침구는 人神에 대해 기피하는 것만 있고吉한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 叢辰趨避法의 직접적인 착안점은 天地의 神煞(叢辰)이다. 천지의 神煞는 인체의 정체적인 기능 상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神煞가 해당되는 날짜에 鍼藥을 피하는 것은 인체의 어느 부위에 한정시키지 않고 전신적이다. 또한 神煞에는 길흉의 구분이 있어 鍼藥에 凶辰을 기피하고 또한 吉辰을 이용한다. 이것이 人神鍼灸避忌法과 叢辰趨避法의 기본적인 차이이다.

人神鍼灸避忌法과 叢辰趨避法에는 공통적인

사상과 이론적인 기초가 되는 天人相應과 象數學的인 神煞論 및 陰陽五行理論이 있다. 人神鍼灸避忌法은 인체의 神氣에 직접 착안하였지만 그러나 人神·人身의 王氣 등 기본 개념 및 人神이 유행하는 방식, 인체의 王氣가 변화하는 규율 등과 같은 이론적인 제시는 天人이 상응하는 사상과 象數學의 神煞과 陰陽五行理論에 기초하고 있다. 즉 人神鍼灸避忌法은 근본적으로 여전히 天地之氣와 神煞의 운행 변화를 참조하였다. 예를 들면 『靈樞』의 “太乙九宮天忌法”, 『蝦蟆經』의 “九部人神避忌法”, 『황제하마경』의 “九宮尻神避忌法” 등은 모두 天神의 운행 방식인 “太乙行九宮”을 참조하였고, 『내경』의 “十干日禁鍼法、四時十二月人氣所在禁刺法과 『蝦蟆經』의 人身王氣、死氣禁刺法은 모두 天地의 陰陽五行之氣가 消長變化하는 운행 규율을 참조하였다. 叢辰趨避法이 천지의 神煞(叢辰)에서 직접 착안하였지만 최종적으로는 여전히 인체의 기능 상태를 겨냥하였다. 형식상으로 보면 鍼藥의 叢辰宜忌論과 象數學의 叢辰宜忌와는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양자는 다르다. 象數學의 叢辰宜忌論은 叢辰趨避의 정확성 여부로 직접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것은 당사자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凶辰을 범하는 사람이 화를 당하고, 吉辰에 순응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러나 鍼藥의 叢辰宜忌論에서는 趨避叢辰의 정확성 여부로 직접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것은 환자이지 의사는 아니다. 즉 鍼灸服藥에 凶辰을 만나면 질병이 낫지 않거나 심해지고 심지어 죽는다. 吉辰에 침구나 복용하면 병이 쉽게 낫는다. 여기에서 鍼灸服藥에서 범하는 것이나 혹은 順逆하는 것은 실제로 천지의 神煞가 아니고 人身之氣의 治亂과 生氣의 유무이다. 천지의 神煞는 실제

로 衰王、治亂、生殺、離合 등 天地之氣의 각종 상태를 대표한다. 인체와 자연계가 상응하는 까닭에 인체의 氣機는 각 神煞에 해당하는 일시에도 天地之氣와 상응하는 각종 상태를 나타낸다. 이는 바로 鍼灸服藥에서 마땅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鍼藥의 叢辰趨避法은 天人相應 사상에 바탕을 두고 天地吉凶神煞를 따라서 간접적으로 이해하고 아울러 인체의 氣機를 겨냥하였다. 요점은 人神鍼灸避忌法과 鍼藥叢辰趨避法은 모두 천지의 氣機(神煞도 氣이다)에서 출발하여 최종적으로 인체의 氣機에 귀결시키고 마침내 인체의 氣機에 맞추었다. 人神鍼灸避忌法은 천지의 神煞에서 직접 착안하였고 간접적으로는 인체의 氣機에 대한 것이다. 양자 모두 象數學의 天人合一(天人相應)인 干支甲日論、神煞論과 陰陽五行理論을 기초로 삼았다. 朝鮮의 金禮蒙은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태어나 陰陽의 氣를 받는다. 甲膽, 乙肝 등 臟腑는 저절로 十干으로 나누어지고, 봄에는 井穴이 여름에는 榮穴이 상응하는 등 모두 四時와 통하여 곧 時日·干支가 인체와 더불어 운행하며, 吉凶悔吝이 人事를 따라 상응한다. 그러므로 『鍼經』에서 ‘자침할 때를 얻으면 반드시 그 병이 제거되고, 자침할 시기를 잃으면 병이 낫기 어려우니, 침구의 도는 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했다”<sup>21)</sup>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鍼灸叢辰趨避法과 人神鍼灸避忌法의 기본 사상이나 이론을 포함한 鍼灸擇日을 개괄적으로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鍼灸叢辰趨避와 人神避忌理論은 象數學의 天人相應論·干

支甲子論·陰陽五行論 등과 연원 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 III. 結 論

이상과 같은 본론을 통하여 『黃帝蝦蟆經』에 記載된 叢辰과 人氣·人神 등의 運行體系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黃帝蝦蟆經』의 人氣 및 人神의 운행 체계는 다음과 같은 네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人氣、人神의 운행 체계는 年神避忌로 연령에 따라 人身에 神이 소재하는 부위가 이동하고 이를 근거로 鍼灸에 그 부위를 피하는 鍼灸避忌法으로 9년을 주기로 삼는다.

둘째. 四時五節王氣避忌으로 四時五節五行의 氣가 五臟에 따라 王相死囚休하며 72일을 주기로 삼으며 王하고 主時하는 臟腑의 經脈을 灸刺할 수 없다.

셋째. 四時五行死氣避忌季로 灸刺에 四時五行의 死氣가 있는 五臟의 經脈은 피한다.

넷째. 逐日人氣人神所在灸刺避忌法으로 三十日人氣(人神)所在灸刺避忌法·六十甲子人神所在灸刺避忌法·十二建人神所在灸刺避忌法·四時十干日五臟王氣所在灸刺避忌法이 있어 각각 30일, 60일, 12일, 10일, 1일을 주기로 人神이 신체 각 부위를 순환하며 이를 피하고 있다.

21) “人生天地之中，稟陰陽之氣。甲膽乙肝，臟腑自分子十干；春井夏榮，經絡皆通于四時，則時日干支與人身而運焉，吉凶悔吝隨人事而應焉。故 『鍼經』云：得時鍼之必除其病，失時刺之難愈其病，則鍼灸之道尤莫重于擇日也。” (『鍼灸擇日編集·序』 明·全循義)

2. 『黃帝蝦蟆經』의 鍼灸叢辰宜忌論에 있어 “叢辰”에는 음양, 오행적인 시간과 방위를 부여하여 吉辰과 凶辰에 따라 鍼灸·服藥·合藥에 避忌하는 것이다. 主時에는 年辰·月辰·日辰·時辰이 있고 그 가운데 日辰이 가장 많다.

3. 叢辰趨避法과 人神禁忌法의 차이점은 叢辰趨避法의 착안점이 天地의 神煞(叢辰)이며 人神鍼灸避忌法의 직접적인 착안점은 人身의 神이라는 것이며, 또한 시술 부위에 있어서는 전자는 전신에 영향을 미치고 후자는 국소적이므로 나머지 부위에는 정상적으로 시술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르다. 그러나 공통적인 이론적 기초를 天人相應과 象數學的인 神煞論、干支甲子論、陰陽五行理論에 두고 있다.

神』, 大有學堂, 1998年.

8. 全循義: 『鍼灸擇日編集』

#### IV. 參 考 文 獻

1. 『黃帝內經靈樞』
2. 『黃帝蝦蟆經』, 中醫古籍出版社, 1987年.
3. 馬繼興: 中醫文獻學, 上海科技出版社, 1990年.
4. 廖育群 外2人: 『中國科學技術史』(醫學卷), 科學出版社, 1998年.
5. 張燦理: 『中醫文獻學』, 人民衛生出版社, 1998年.
6. 山田慶兒: 『중국과학의 사상적 풍토』, 전파과학사, 1994年.
7. 金秀吉 外1人 共譯: 『五行大義·論諸